

# TIPLONews 한국어본

2023 년 10 월호(K290)

K230907Y1

## 01 2022 년 대만과 WIPO 의 발명특허출원 동향 비교분석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sup>1)</sup>은 2023 년 9 월 7 일 「2022 년 대만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sup>2)</sup> 발명특허 출원접수와 관련된 동향 비교분석」을 발표했다. 2022 년 발명특허 출원접수 건수를 기술 분야별로 보면 대만에서는 「반도체」가 14.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WIPO 에서는 「컴퓨터 기술」이 10.4%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출원건을 국적별 기술 분야로 살펴보면 대만, 일본,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은 모두 대만에서 「반도체」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한편, WIPO 으로의 출원에서는 「컴퓨터 기술」, 「디지털 통신」 및 「전자 기계, 전기 장치, 전기 에너지」가 중시되고 있었다. 대만 출원인 상위 10 개 지원자중 1 위는 TMSC<sup>3)</sup>인 반면 WIPO 에서는 중국 화웨이(HUAWEI)가 1 위를 차지했다.

1. 대만 발명특허 출원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WIPO 에서의 성장률은 최근 13 년 동안중 가장 낮았다.

2022 년 대만내 발명특허 출원건수는 미국, 중국, 한국의 9.4~16.1% 성장에 힘입어 연간 2.3% 증가한 50, 242 건의 출원접수가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WIPO 에서의 추정치는 278,100 건으로 연간 0.3% 증가했으며 성장률은 2009 년 이후 가장 낮았으며 중국, 미국, 일본의 상위 3 개국은 모두 1.0% 이내였다.

2. 대만인 출원인은 6 개 대도시<sup>4)</sup>와 신주시(新竹市)에 집중되어 있으며, 상베이(雙北)<sup>5)</sup>와 신주시(新竹市)의 합계가 55.4%를 차지.

대만의 발명특허 출원건 중 대만출원인은 주로 6 개 대도시와 신주시(新竹市) 출신으로 2022 년 총 92.3%를 차지했으며, 이중 상베이(雙北)와 신주시(新竹市)가 55.4%를 차지해 2018 년(50.7%)보다 4.7% 증가했다. 신주시(新竹市)가 4,455 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이베이시(臺北市),

(3,154 건), 신베이시(新北市)(3,129 건)가 뒤를 이었다. 또한 마오리현(苗栗縣)은 84.9% 증가한 538 건으로 처음으로 500 건을 돌파했다.

3. 대만의 발명특허 출원은 「반도체」 분야가 1 위이었고, WIPO 에서는 「컴퓨터 기술」분야가 가장 많은 출원을 차지

2022 년 대만의 발명특허 출원은 「반도체」(14.5%)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컴퓨터 기술」(9.0%)이 그 뒤를 이었다. WIPO 에서는 「컴퓨터 기술」(10.4%)이 가장 많았고 「디지털 통신」(9.4%)이 그 뒤를 이었다.

상세내용을 보면 대만과 WIPO 의 상위 10 대 기술 분야에는 「반도체」, 「컴퓨터 기술」, 「전자 기계 에너지 장치」, 「시청각 기술」, 「계측기술」, 「약물」등 6 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반도체」는 대만에서 1 위, WIPO 에서는 10 위(3.3% 차지)를 기록하고 있어 대만에서 「반도체」가 신청건수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WIPO 가 선정한 상위 5 대인 「디지털 통신」과 「의료 기술」은 대만의 상위 10 위 안에 들지 않았다.

4. 주요 국가(지역)에서 대만에 신청하는 발명특허 대부분이 「반도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WIPO 에서는 「컴퓨터 기술」, 「디지털 통신」 및 「전자 기계 에너지 장치」분야가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2022 년 대만에서는 대만, 일본, 미국, 중국 그리고 한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출원해 11.7~22.5%를 차지하였고, 독일은 「유기정밀화학」 분야(10.8%)에 가장 많이 출원하였고, 출원한 상위 3 대 기술 분야에 「반도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WIPO 에서 중국(15.7%)과 미국(13.1%)이 가장 많이 신청한 기술 분야는 「컴퓨터 과학기술」, 일본, 독일은 「전자기계 에너지장치」(각각 약 11%), 한국은 「디지털통신」, 「컴퓨터 과학기술」, 「전자기계 에너지장치」로 각각 약 10~11%를 차지하였다.

5. 대만 발명 특허 출원인은 TSMC 가 1 위를 차지하였고, WIPO 에서는 중국 화웨이(Huawei)가 1 위를 차지.

2022 년 대만 출원인은 TSMC(1,534 건)가 4 년 연속 1 위를 차지했으며 미국 AMAT<sup>6</sup>(847 건), 미국 퀄컴(Qualcomm)(763 건), 한국 삼성전자(666 건)가

뒤를 이었다. WIPO 에서는 중국 화웨이(Huawei)가 7,689 건으로 6 년 연속 1 위를 차지하였고 한국 삼성전자(4,387 건), 미국 퀄컴(3,855 건)이 그 뒤를 이었다. 대만과 WIPO 상위 10대 신청자에는 모두 미국 퀄컴(Qualcomm)과 한국 삼성전자가 포함됐다.

6. 출원인 상위 10 대 특허출원을 기술분야별로 보면 대만에서는 「반도체」가 가장 많았고 WIPO 에서는 「디지털 통신」 비중이 높았다. 2022 년 대만 출원인 상위 10 대기업이 2019~2021 년 출원한 상위 3 대 기술분야를 보면 TSMC 등 6 개사는 「반도체」가 가장 많았고(해당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2~80.6%), 특히 Nanya<sup>7)</sup>는 「반도체」가 이 회사의 80.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WIPO(2022 년분 출원건수)에서는 중국 화웨이(Huawei)등 6 개사가 「디지털 통신」 분야를 중시했고(26.9~70.4%), 특히 LM 에릭슨(LM Ericsson)(스웨덴)은 「디지털 통신」이 이 회사의 70.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한편 비교해보자면 삼성은 대만에서의 특허 출원은 「반도체」, WIPO 에서는 「디지털 통신」이 각각 가장 많아 특허 전략이 확연히 차이를 알수있었다. 반면 Qualcomm 은 대만과 WIPO 모두 1 위가 「디지털 통신」, 3 위가 「컴퓨터 기술」로 특허 전략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7. 장기적인 출원경향을 보면 WIPO 는 대만에 비해 「디지털 통신」과 「의약」 분야를 중시  
대만 지혜재산국이 1999 년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특허출원건수는 연평균 3.6% 성장하고 있으며, 기술분야로 보아선 「반도체」가 가장 많으며 「컴퓨터기술」, 「전기기계」, 「전기장치」, 「전기에너지」, 「광학」, 「음향·영상 기술」이 그 뒤를 이었다. WIPO 에서는 1978 년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해 특허출원을 접수하기 시작한 후 연평균 11.5% 성장해 기술분야별로 보아 「컴퓨터기술」이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의료기술」, 「디지털통신」, 「전기기계」, 「전기장치」, 「전기에너지」, 「의약품」이 그 뒤를 잇고있어 대만에 비해 「디지털 통신」과 「의약」 분야가 중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23.09)

역주:

1) 대만 지혜재산국은 한국의 특허청에 상당한다.

- 2) WIPO 는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지칭한다.
- 3) TSMC 는 台灣積體電路製造公司,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 Ltd. (TSMC)를 지칭한다.
- 4) 대만 6 개 대도시를 지칭하며, 臺北市, 新北市, 桃園市, 臺中市, 臺南市, 高雄市등을 뜻한다.
- 5) 통칭 臺北市와 新北市 그리고 基隆市를 포함하는 台北광역 도회지역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 6) AMAT 는 Applied Materials, Inc.를 지칭
- 7) 중국어명 南亞科技, 영어명 Nanya Technology Corporation (Nanya)



**02 청핀(誠品)상표침해안, 청핀(誠品)포장이사 재 1 심에서 패소**

청핀(誠品)주식회사<sup>1)</sup>와 청핀(誠品)포장이사<sup>2)</sup>는 다년간 상표소송을 진행해 왔다. 청핀(誠品)주식회사는 청핀(誠品)포장이사가 상표권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하였고, 청핀(誠品)포장이사는 1 심에서는 승소하였으나 2 심에서는 패소하였고 대만화폐 300 만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본건을 환송 판결하였고, 재 1 심<sup>3)</sup>에서 청핀(誠品)포장이사는 패소하였고 대만화폐 총 600 만원을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아직 확정은 되지않은 상태이다.

청핀(誠品)주식회사 공식웹사이트에서 청핀(誠品)주식회사는 청핀(誠品)포장이사가 최근 일방적인 주장을 SNS 와 언론을 통해 계속하여 발표하고 있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성명문을 냈다. 2023 년 8 월 17 일 대만 지혜재산 및 상사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청핀(誠品)주식회사와 청핀(誠品)포장이사간의 상표권 침해사건에 관해 청핀(誠品)포장이사에게 「청핀(誠品)」, 「청핀(誠品)물류」 등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동시에 이들 상표를 사용한 물품의 제거를 명령하였고 나아가 해당회사와 그 책임자가 연대하여 청핀(誠品)주식회사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였다.

법원 판결 전문이 2023 년 8 월 31 일 공표되었고 청핀(誠品)주식회사는 변호사의 판결 이유 요약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청핀(誠品)포장이사가 청핀(誠品)주식회사의 등록저명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청핀(誠品)포장이사는 지금까지 「청핀(誠品)」 상표의 등록을 취득한 적이 없지만, 「청핀(誠品)」이라는 두 글자를 사용하여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게다가 「청핀(誠品)」의 두 글자를 단독으로 표시하거나 문자를 확대하여 식별로써 사용하고 있다. 청핀(誠品)포장이사는 2006 년에 설립되었으며, 「청핀(誠品)」상표는 1993 년, 1998 년, 2000 년, 2001 년에 중앙표준국(지혜재산국)과 법원으로부터 일반소비자(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로 인정받고 있다.

둘째, 청핀(誠品)포장이사는 영업에 사용하고 있는 트럭, 종이상자, 회사복장 및 사이트에서 현저한 비율로 「청핀(誠品)」이란 두 글자를 단독 또는 확대하여 표시하고있어, 소비자는 두회사의 상표를 통해 상품/서비스가 동일한 출처에서 온 것으로 오인하거나 두 상표의 사용자 사이에 관련 기업, 사용허락관계, 가맹관계가 존재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청핀(誠品)포장이사의 책임자는 청핀(誠品)의 이름을 빌린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 청핀(誠品) 상표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한 정황이 보인다. 청핀(誠品)포장이사의 책임자는 2010 년 인터뷰에서 「청핀(誠品)서점」이라는 이름을 빌려 「포장이사업계의 청핀(誠品)」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 그 블로그, 페이스북 및 사이트에서도 그 인터뷰 내용을 여러 차례 인용했었다.(2023.09)

역주:

- 1) 청핀(誠品)주식회사는 중국어명 誠品股份有限公司, 영어명 The Eslite Corporation 를 의역하였다. 誠品の 중국어 발음은 Cheng Pin(청핀)이다.
- 2) 청핀(誠品)포장이사는 중국어명 誠品搬家有限公司, 영어명 Champion Moving Company 를 의역하였다.
- 3) 대법원에서 환송판결을 받아서 재심 1 차를 행한 것을 의미.

K230907Y4

### 03 좋은집 주택과 용칭(永慶) 주택은 신이(信義) 주택의 명예를 침해하였고 공평교역법을 위반하였기에, 대만화폐 300 만원의 배상을 판결

부동산 중개법인인 신이(信義)주택<sup>1)</sup>에 따르면 용칭(永慶)주택<sup>2)</sup>은 좋은집 주택<sup>3)</sup>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HouseFun<sup>4)</sup>을 통해 장기적이고, 빈번하고 대량으로 신이(信義)주택의 부정적인 소식을 유포해, 신이(信義) 주택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였다. HouseFun 사이트, HouseFun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글과 동영상에서 신이(信義) 주택, 「사기」, 「악덕」 등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민어서 속았어?!」, 「#부동산 사기」, 「#악질 부동산 중개업자」, 「#악덕업주 신이(信義) 주택」 등의 태그를 달아 시청자들이 신이(信義) 주택에 대해 쉽게 부정적인 인상을 갖도록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을 제작해 허위 동영상 요약에 사용하고 그와 동시에 검색 연동형 광고를 했다. 따라서, 신이(信義) 주택은 좋은집 주택과 용칭(永慶) 주택을 제소했다.

타이베이(台北) 지방법원은 2023 년 7 월 19 일 좋은집 주택과 용칭(永慶) 주택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뉴스 보도, 광고 등의 방법을 통해 신이(信義) 주택의 부정적인 뉴스를 게재하는 행위는 신이(信義) 주택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대만화폐 300 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허위 부정적인 뉴스를 삭제하고 아울러 피고인 좋은집 주택과 용칭(永慶) 주택은 판결문을 신문에 게재하여 대중에게 고지해야 하며 앞으로는 신이(信義) 주택의 문자를 포함한 검색 연동형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1 심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보도의 자유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해 최대한의 보장을 해줘야 하지만 언론이 합리적으로 보도에 대해 뒷받침하지 않거나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이 의심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도 이를 보도를 함으로써 보도의 내용이 사실과 달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훼손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좋은집 주택과 용칭(永慶) 주택은 「신이(信義) 주택」의 키워드에 대해 검색 연동형 광고를 하고 동시에 또는 각각 좋은집 주택이 제작한

신이(信義) 주택의 부정적인 뉴스 및 신이(信義) 주택이 악덕 중개업체임을 암시하는 콘텐츠를 게재하고있어, 즉 인터넷에서 신이(信義) 주택에 대한 뉴스를 읽은 적이 있는 잠재적 고객은 모두 좋은집 주택이 게재한 신이(信義) 주택의 부정적인 뉴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법원은 「신이(信義) 주택의 잠재적 고객을 잃을 우려가 있고, 공평교역법 제 25 조에서 말하는 기만적이거나 현저하게 공정함이 부족한 행위를 구성», 「정확하게 신이(信義) 주택에 관심을 가지는 잠재적인 거래대상을 타겟층으로 하고, 신이(信義) 주택의 영업상의 신용에 타격을 주어 공정한 거래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며», 「만약 소비자의 판단을 잘못하도록 암시하는 작용을 가져오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좋은집 주택 및 용칭(永慶) 주택은 신이(信義)주택의 키워드를 포함한 검색 연동형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좋은집 주택과 용칭(永慶)주택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좋은집 주택의 법정대리인인 린수전(林淑貞)은 용칭(永慶)주택의 법정대리인이자 설립자인 쑤칭위(孫慶餘)의 아내이며, 용칭(永慶)주택의 주식 대다수는 여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회사법인의 법정대리인은 모두 쑤칭위(孫慶餘) 또는 린수전(林淑貞)이며, 「용칭(永慶)주택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자는 여전히 쑤칭위(孫慶餘), 린수전(林淑貞)부부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고, 용칭(永慶)주택은 신이(信義)주택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좋은집 주택의 행위도 이미 공정법 24 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023.09)

역주:

- 1) 중국어명 信義房屋股份有限公司, 영어명 Sini Realty Inc. (신이(信義)주택)
- 2) 중국어명 永慶房屋仲介股份有限公司, 영어명 Rehouse Co.(용칭(永慶)주택)
- 3) 좋은집주택은 중국어명 好房國際股份有限公司를 의역한 것임.
- 4) 중국어명은 好房網